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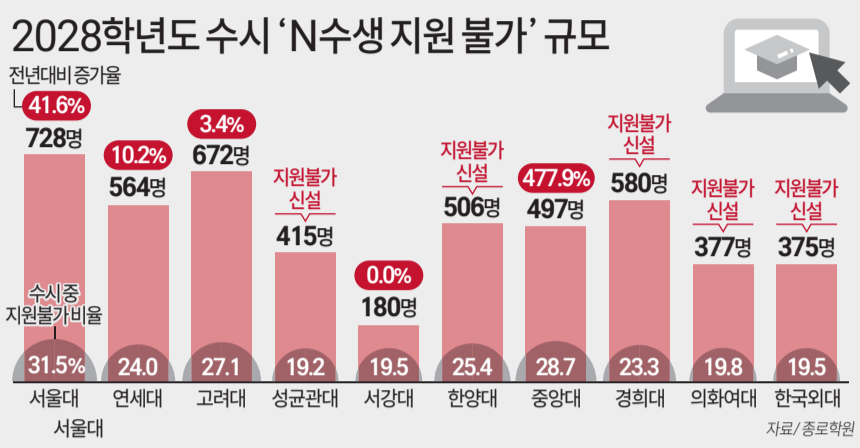
# 내신체제 개편에 지원제한 급증 N수생 주요대 수시 문 좁아진다

2028학년도 대입, N수생 제한 늘어  
주요 대학 4명 중 1명 '지원불가'  
5등급제 전환에 평가부담 커져  
올해 수시 교과전형 경쟁심화 예상

2028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10개대 수시 모집인원 4명 중 1명기량은 N수생이 지원할 수 없는 전형으로 선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서로 다른 내신 체제의 수험생을 함께 평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 2027학년도 수시에서는 주요대 교과전형을 중심으로 지원 풀림과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14일 종로학원이 2027·2028학년도 주요 10개 대학 수시모집 전형을 분석한 결과, N수생 지원이 불가능한 전형의 모집 인원은 2027학년도 1942명에서 2028학년도 4894명으로 2952명 늘었다. 증가율은 152%다. 분석대상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경희대·이화여대·중앙대·서강대·한국외대 등 10개 대학이다. 주요 10개대 수시에서 N수생이 지원할 수 없는 전형의 비중도 커졌다. 2027학년도에는 수시 모집인원 1만9279명 중 N수생 지원 불가 전형이 1942명으로 10.1%였지만, 2028학년도에는 수시 모집인원 2만264명 중 4894명으로 24.2%를 차지한다.

대학별로는 2027학년도 수시에서 N수생 지원 제한이 없었던 성균관대, 한양



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5개 대학이 2028학년도에 관련 전형을 신설한다. 이들 5개 대학의 N수생 지원 불가 전형 신설 인원은 총 2253명이다.

기준에 N수생 지원 제한 전형을 운영하던 대학에서도 모집인원이 늘어난다. 서울대는 2027학년도 514명에서 2028학년도 728명으로 41.6% 증가하고, 연세대는 512명에서 564명으로 10.2% 늘어난다. 고려대는 650명에서 672명으로 3.4% 증가한다. 중앙대는 86명에서 497명으로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서강대는 180명으로 유지된다.

2028학년도 각 대학 수시 모집인원에서 N수생 지원 불가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대가 3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대 28.7%, 고려대 27.1%, 한양대 25.4%, 연세대 24.0%, 경희대 23.3% 순이었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에 제한이 집중됐다. 2028학년도 주요 10개대 N수

생 지원 불가 전형 4894명 중 교과전형이 4079명으로 83.3%를 차지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728명으로 14.9%, 논술전형은 87명으로 1.8%였다.

이는 내신 정량평가 비중이 큰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서로 다른 내신 체제를 적용받은 수험생을 비교하는 데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N수생과 빈수생의 움직임도 올해 수시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 9등급제 내신을 가진 수험생들이 올해 2027학년도 수시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8학년도 내신 5등급제 전환 첫해인 만큼 대학들이 내신 체제 혼재에 대응해 지원 자격을 조정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후 대입 환경과 지원자 규모에 따라 대학별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대학 10곳 중 6곳, 2년 연속 등록금 인상

203개 대학 연속 인상... 전체 64% 수도권·4년제 사립대 인상 흐름 뚜렷

전국 대학 203곳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사립대와 수도권 대학에서 인상 흐름이 두드러졌고, 서울 소재 사립 일반대학은 10곳 중 9곳 가까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렸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 모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전국 317교 중 203교로 집계됐다. 전체의 64%다.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한 203교를 학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이 115교, 전문대학이 88교였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가 200교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공립대는 3교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115교 중 84교, 비수도권 대학 202교 중 119교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렸다.

인상 비율은 사립대와 수도권에서 더 높았다. 사립대와 수도권 대학 모두 10곳 중 7곳 이상이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등록금을 인상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사립 4년제 대학에서 인상 흐름이 뚜렷했다. 수도권 사립 일반·교육 대학 65교 중 51교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해 78.5%를 기록했다.

서울 소재 대학 48교 중 39교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려 81.3%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서울 사립 일반대학은 34교 중 30교에 해당하는 88.2%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서울 사립 일반대학 10곳 중 9곳 가까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린 셈이다.

2024년 대비 2026년 평균등록금 증감률은 8~9% 구간이 가장 많았다. 해당 구간에 속한 대학은 131교였다. 다만 이 수치는 대학이 공시한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학과별 정원 변화 등의 영향이 반영될 수 있다.

김문수 의원은 "대학재정이 등록금에만 기대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과 법인 투자, 대학의 자체 수입 확대 방안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 안성시 금광호수 연간 방문객 45만명 돌파

전국서 찾는 대표 관광 명소로 성장

안성시는 지역 대표 관광지인 금광호수 일대가 관광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콘텐츠 개발에 힘입어 방문객 증가와 소비 확대, 창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조성 전후를 기준으로 BC카드와 KT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광객 유입과 소비, 창업 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개발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통신 데이터 분석 결과, 박두진문화길과 수석정 수변화원 등을 포함한 금광호수 주요 관광자원의 연간 방문객 수는 4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광호수가 지역 관광지를 넘어 수도권과 전국 관광객이 찾는 대표 호수관광 명소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비 효과도 뚜렷



금광호수. /안성시

하게 나타났다. 금광호수 반경 2km 이내 관광 관련 소비업종 26개 업종의 연간 카드 매출액은 하늘전망대 개장 전 199억 원에서 개장 후 253억 원으로 증가해 54억 원(26.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상권의 활력을 보여주는 창업 지표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2024년 8월 하늘전망대 개장 이후 반경 2km 내 신규 창업은 157개에 달한 반면 폐업은 3개에 그쳐 순증 규모가 154개로 집계됐다.

/안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통합운영 '이음학교' 확대... 학생 감소 대응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개선 나서  
2개 이상 학교 인적·물적자원 통합  
재학생 학부모 50% 찬성시 지정 추진  
교육활동·시설개선 최대 110억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확대에 나선다. 학교 재배치와 통합할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소규모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정 학교에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대 110억원이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저출생과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 운영 공모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음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모델이다.

서울에서는 현재 강빛초·중, 해누리초·중, 서울체육중·고, 잠실여중·고, 이대부속이화금란중·고 등 5개 학교가 이음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2027년 3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된다. 통합 유형은 초·중, 중·고, 초·중·고 등이며, 운영 방식은 ▲일체형(학교 시설을 폐쇄해 통합 운영) ▲연계형(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운영) ▲복합형(2개 이상 학교급을 동시에 신설·이전) 등으로 나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공립학교는 교육지원청이 학교 의견을 수렴해 자체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학교가 많으면 추가 지정도 가능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지정 시기는 앞당기거나 변경될 수 있다.

이음학교 지정에는 학부모 동의 절차가 핵심 요건으로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재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지정을 추진한다. 학교 규모와 통학거리 등도 함께 고려된다. 학교 규모는 초등학교 240명 또는 12학급 이하, 중·고등학교 300명 또는 15학급 이하가 참모 기준이며, 통학거리는 200m 이내가 고려 사항이다.

이음학교로 지정되면 교육활동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부 지원금을 활용해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 경우 10억원, 시설을 폐쇄해 통합 운영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40억~60억원, 중·고등학교는 90억~110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적정규모교육성장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육활동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운영 과정에서는 교장 1명, 행정실장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교사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급별 배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초기 안정화와 학교 특수성 등을 고려해 조정 배치도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 각종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합 운영 하되, 구성원 의견에 따라 분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급 간 연계와 통합을 확대하고, 교과·비교과 교육활동, 행사, 학생 생활지도, 교직원 연수, 학부모 협의회, 시설·교구 등을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현진 기자



▲美, 앤스로픽 AI 해외 접근 차단 조치...배경엔 아마존 제보  
▲中, 대만 동부 해상교통로 상시 감시 나서...“유사시 대만·해상 봉쇄 사전 준비” /사신 뉴시스

▲다카이치, G7에 희토류 공동 비축 제안...中에 대응 모색  
▲美·이란 전쟁 첫날 사망 하메네이, 내달 4일부 터 장례식

▲러시아군 “주말 하루새 우크라이나 드론 540기 격추...유류·수송시설 강타”  
▲‘월드컵 마스크트 위장’ 페루 경찰, 마약 밀매 용의자 체포